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9월 월삭 예배(월 축복예배) 안내**

일시: 9월 1일(화) 오전 6시 / 장소: 대예배실

- * 새로운 한 달, 첫 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 월삭 예배 설교 마친 후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 * 월삭 예배 헌금 봉투는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투 앞 면에 가정별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정성껏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요 에스더 기도회 안내**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목요 에스더 기도회로 이름을 바꿔 세대를 초월하여 "전연령 여성 기도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 * 날짜 : 9월 3일(목), 시간 : 오전 10시 * 문의 : 권준희 사모

• **교회 잔디 깎기 봉사 안내**

교회 주변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잔디 깎기를 진행합니다. 잔디 깎는 기구(제초기)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과, 더불어 함께 봉사에 주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날짜 : 9월 5일(토) 오전 7시 20분 * 문의 : 이운섭 장로

• **주일 친교 안내**

- * 9월 6일 (주일)부터 주일친교가 시작됩니다.

• **남플 가을소중/체육대회 안내**

- * 날짜: 9월 7일(월), Labor Day, 10am~3pm
- * 장소/ Tradewinds Park/ Grandiosa Shelter
3600 W Sample Rd, Coconut Creek, FL 33066
- * 청팀: 물댄동산, 베뢰아, 열매, 사랑나눔, 만나
- * 백팀: 아름다운, 시온의빛, 예수마을, OK, Unity, 갈렙
- * 행사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 문의- 홍석주 집사/윤성민 전도사

• **엠마오 캠프 안내**

- * 날짜 : 10월 11일(주일)~14일(수)
- * 장소 : 미시건 디트로이트 * 신청 : 교회 로비 * 문의 : 담임목사

• **성도 찬양 나눔 안내**

사랑하는 남플 가족 여러분, 평소 마음에 깊은 은혜와 울림을 주었던 성도님들의 찬양을 나눠주세요. 예배 찬양 정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신청은 예배당 입구에 마련된 박스나 온라인을 통해 8월 31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유철우 집사

• **핸드벨 단원 모집 안내**

성탄절(12/25) 예배에 핸드벨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 심성애 권사 (954-646-5452)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헌금 통계

일반헌금	\$15,909.00	십일조: \$7,787.00	감 사: \$1,120.00
		주 일: \$2,091.00	기 타: \$4,911.00
지정헌금	\$715.00	목 장: \$685.00	건 축: \$3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5권 35호
2026년 8월 30일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성령강림후 열네번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428장(통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기도 Prayer / 진애주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주 날 인도하시네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성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약(Jas) 1:3-4.....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온전한 인내 >

Complete patience

▲ 파송찬송 Closing Hymn/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8월/9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8월 30일	1부	사랑나눔 목장	담당자	진애주권사	
	2부			유철우집사	
다음주 9월 6일	1부	시온의빛 목장	담당자	이정석권사	아름다운 목장
	2부			이정석권사	

설교요약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관계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야고보는 흠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2)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 56:3)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전 2:3)고 고백했습니다. 러므로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무엇을 붙드느냐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평안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문제, 질병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말로 나타나지만, 시련 가운데 있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손에 힘이 빠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시련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환경이도자기가 흠으로 빚어지고 불가마를 통과하여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과 기도와 여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나를 빚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며,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

<설교 요약>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련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써 내려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감도 은혜이고 내려감도 은혜입니다. 기쁨 때도 은혜이고 눈물 날 때도 은혜입니다. 문이 열릴 때도 은혜이고 문이 닫힐 때도 은혜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도 은혜이고 기다리는 시간도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한 주 간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나눔 질문 >

- 1)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라는 말이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최근 내 삶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2) “평안할 때의 믿음은 말로 나타나지만, 시련 가운데 있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평안할 때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3)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당시에는 힘들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믿음을 빚어 가셨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금주 애찬 섬김

	금주 (8월 30일)		다음주 (9월 6일)
			김대승.한영숙권사
			범사감사
			아름다운목장